

캔맥주 잔여량 표시 인쇄

온도에 따라 색깔 변하는 특수 잉크 사용

맥주하면 누구나 쉽사리 시원스럽게 갈증을 풀어주는 음료수(?)라 생각한다. 누가 맥주를 연상하는데 따뜻하고 김빠진 맥주를 생각하겠는가. 맥주는 역시 시원해야 하며, 또한 시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맥주가 아니다. 어쩌면 맥주는 시원함의 전령인지도 모르겠다.

특히 요즘처럼 짜증나는 무더위에는 시원한 맥주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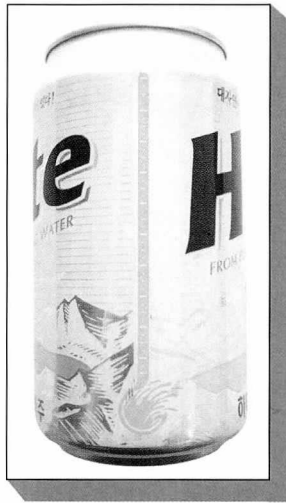
각이 절로 난다. 알맞게 냉장된 캔맥주는 잡는 그 순간부터 모든 시름을 잊고 시원함 속으로 빠져들게 마련이다. 아니 그런 생각만 해도 시원스러움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맥주 중 하이트맥주에서 나오는 캔 맥주에 내용물의 잔여량을 표시해주는 눈금자의 인쇄부분을 보고 맥주 잔량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정도만 알뿐이지 어떤 잉크로, 어떤 방식으로 인쇄를 했는지는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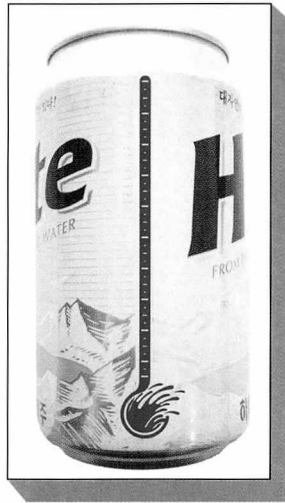
우선 잉크는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화되는 시온잉크 또는 변온잉크라고도 불리는 것으로서 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의 바스프(Basf)사가 최초로 개발했다.

주로 변하기 쉬운 유기화합물을 이용하는데, 성분의 내용이나 결합방식에 변화를 주면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없던 색깔이 나타나거나 반대로 있던 색깔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으며, 색상변화까지도 시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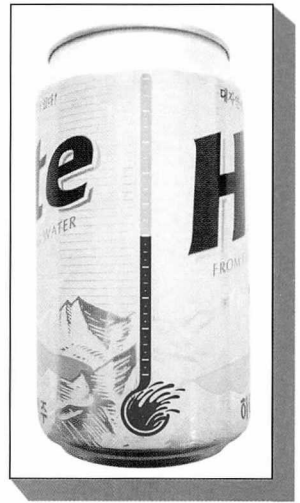
이러한 잉크를 사용해 오프셋 방식으로 6색 인쇄를 하는데 맥주캔은 2피스캔이어서 일반적인 방식대로 금속판에 먼



◆ 냉장전의 상태



◆ 7도 이하의 냉장 상태



◆ 절반 음용후의 상태

저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컵 모양으로 성형된 후 인쇄를 하게 됨으로서 자동라인이 갖추어져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특수잉크를 사용함으로써 작업효율(속도)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바니시, 건조, 잉크날림, 도막량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하다.

잉크는 은성무역이라는 곳에서 미국의 CTI사로부터 수입해 국내에 보급하고 있으며, 삼광유리(구 삼광캔)에서 캔의 제조와 인쇄를 맡고 있다.

하이트맥주의 하이트 캔(355ml)과 하이트프라임 캔(355ml)에 적용되는 온도 눈금자는 맥주를 마시기에 최적의 음용온도인 7도 이하에서 가장 푸른색을 띄며 7도 이하에서 캔 내부의 내용물이 줄어들면 캔 표면의 푸른색이 사라지고 냉장 전처럼 변화하여, 결국 내용물이 남아있는 부분만 표시하게 된다. Ⓞ

윤재호 부장
<yunjaeho@print.or.kr>